

아시아나항공 새 주인 찾기 본격화

이르면 오늘 매각 공고...최소 1조~2조5000억 추산 SK·한화·CJ·에경 등 인수전 참여 전망... '통매각' 관심사

아시아나항공이 새 주인을 찾기에 나선다. 이르면 25일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SK, 한화, CJ, 에경 등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관심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업계에서는 이들 기업이 내부적으로 인수 참여를 면밀히 준비하고 있지만, 인수전이 과열되면 매각 가격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진의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이르면 25~26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각 공고에 이어 인수협상대상 후보군(소트리스트)을 추리는 예비입찰에 이어 본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과정을 거치면 연내 본격 계약 체결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 매각은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이 보유한 구주(33.47%)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함께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가격이

최소 1조원에서 2조5000억원까지 나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각 과정에서 먼저 입찰자가 아시아나항공 신주와 구주의 가치를 어떻게 책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구주 매각 대금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가 챙겨 채무를 해결하고 재기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주 매각 대금은 아시아나항공으로 들어가 재무구조 개선과 항공기 구입 등 투자에 사용된다.

이 때문에 구주 가치를 높게 받으려는 금호산업과 신주 가치에 비중을 두는 채권단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매각'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통매각'은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을 모두 묶어 파는 방식을 말한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이미 '통매각이 원칙'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매각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분리매각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어느 기업이 아시아나의 새 주인이 될 지다.

먼저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업은 SK그룹이다. SK그룹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이 흘러나와 이에 대한 공식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SK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지만, 최규남 전 제주항공 대표를 수석추진위원회의 글로벌사업개발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행보가 항공업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읽혔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자금력이 충분할 뿐 아니라 항공업에 진출할 경우 정유, 물류, 레저, 호텔, 면세점, 통신 등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SK그룹 측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한화그룹도 항공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수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는 2015년 삼성으로부터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을 인수해 항공기 엔진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설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0월 한화 기계 부문 항공사업을 인수하고, 지난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케이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했던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화 역시 이날까지도 인수설을 부인하며 "검토한 바 없고, 생각해본 적 없

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LCC 업계 1위 제주항공을 운영하는 에경그룹은 "검토해보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에경은 아시아나 인수 시 시너지 효과 등 막바지 손익계산을 하고 있으며 입찰 참여를 진지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에경이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전략적투자자나 재무적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면세점 사업을 통한 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신세계그룹도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그룹은 2017년 티웨이항공 인수를 추진하다가 포기한 전력에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는 지난해 신규 LCC인 플라잉윈에 투자한 이력도 있다.

CJ그룹과 롯데그룹도 물류업을 기반으로 항공운송 사업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부분 대기업이 전략기확실 등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손익계산을 모두 마치고 보고서를 워싱턴에 올렸을 것"이라며 "최고결정권자가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지는 아마 조만간 인수전이 시작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82.30 (-19.15)	↓ 금리(국고채 3년) 1.32 (-0.02)
↓ 코스닥 659.83 (-8.82)	↓ 환율(USD) 1177.90 (-1.00)



'광천 e센트럴스퀘어' 내일 주택전시관 개관

신구도심 중심 생활 인프라 형성 입지 탁월하고 교통망도 우수

고려개발이 광주 최대 재개발지역인 서구 광천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천 e센트럴스퀘어' (투시도)를 짓는다. 주택전시관은 서구 운암동 97-1번지에 마련, 26일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광천 e센트럴스퀘어'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23층, 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07가구 규모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42만6380㎡ 부지에 8800여 가구의 신혼 주거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천동은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금남로·충장로의 구도심과 교통·상업·업무 중심지인 신도심 상무·수원지구 등의 중앙이어서 미래가치도 높다.

입지도 탁월하다.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광천시장이 있으며, CGV, 유·스퀘어도 인접해 문화·쇼핑 등

을 즐길 수 있다. 바로 앞에는 효광초등학교가 있어 자녀의 통학이 안전하다. 교통망도 우수하다. 광주 전역을 빠르게 잇는 죽봉대로와 무전대로가 인근에 있으며 서광주IC를 통해 출퇴근이 용이하다.

광주시청, 서구청, 광천동주민센터, 호남지방통계청, 전남지방우정청 등 행정 인프라도 좋다. 단지 인근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갖춘 광주천, 5·18기념공원, 평화공원이 있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가까이에 광주 최대 제조업체인 기아자동차가 있고, 유스퀘어 주변으로 메디칼 스트리트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으로 광천동은 신혼주거타운이 형성될 것"이라며 "최대 수혜단지로 꼽히는 '광천 e센트럴스퀘어'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문의, 1600-1286.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건설사 대광건설 대한저축은행 인수

광주지역 증권 건설회사인 대광건설(대표 조영훈)이 대한저축은행을 인수했다.

대광건설은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한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10월 설립된 대한저축은행은 광주가 본사다. 지난해 말 현재 자기자본 231억원, 총자산 1868억원, BIS(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비율 17.17%로 재무구조가 우수하다.

대광건설은 대한저축은행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건설부문과는 계열사 간 교류를 하지 않는 차이나스 월(chinese wall)을 명확하게 해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광건설 관계자는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증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며 "광주·전남지역 서민·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한 '포용 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광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로제비앙'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4456억원, 자기자본 1600억원 규모다.
/박정욱 기자 jwpark@

광주은행, 해남사랑상품권 1000만원 구매 기탁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 세번째)은 23일 해남사랑상품권 1000만원을 구매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3일 오후 해남사랑상품권 1000만원을 구매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은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청에서 진행되었으며, 구매한 상품권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해남관내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해남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보탬이 되고, 더불어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의 곳곳에 힘을 보태어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하고, 지역민과 동행하는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4.5월 3000만원 상당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을 구매해 지역 소외계층에 기탁했다. 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5개 기업, 산단 중점육성기업 선정

지오씨(주), ㈜티디엠, ㈜유프랜드, ㈜화인특장, 노바텍(주) 등 광주·전남지역 5개 기업이 산업단지 중점육성기업으로 선정됐다.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성장유망기업 30개 사를 모집, 엄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성장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이들 5개 기업을 중점육성기업으로 선정했다.

지오씨는 광케이블·광부품을 생산하는 광산업 업체로, 코넥스에 상장된 명품

강소기업이다. 티디엠은 골절치료 의료기기를 생산하며 지난해 미국에 TDM USA를 설립했다. 유프랜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형 로봇을 개발한 자동차부품회사이며, 화인특장은 특장차를 생산하는 명품강소기업이다. 노바텍은 스마트팩토리 및 그룹웨어를 도입한 자동차용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들 기업에는 전남 전문위원이 매칭돼 중점 진단을 하고, 이를 통해 성장 전략과 육성 과정에 따라 단계별 컨설팅을 2020년 말까지 지원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손해보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에도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손해보험입니다.